

한국 민담에 나타난 대극의 합일

- 〈구렁덩덩 신 선비〉 중심으로 -

李 裕 瓊*

국문 초록

이 논문의 목적은 한국 민담에서 대극의 합일(coniunctio oppositorum, Vereinigung der Gegensätze), 신성혼(hieros gamos, göttliche Hochzeit) 주제를 다루어 보는 것이다. 한국 민담 〈구렁덩덩 신 선비〉는 동물형상의 배우자를 맞이하는 민담 중의 하나이다. 특히 여성주인공이 남성의 동물 배우자를 맞이하는 민담이다. 이 민담은 아플레이우스(Apuleius)가 소개한 그리스 민담 〈아모르와 프쉬케〉와 그림 형제 모음 민담 〈노래하며 날아오르는 종달새〉와 비교할 수 있다.

민담에 등장하는 동물들은 신성(神性)과 통한다. 동물들은 본능에 충실한 삶을 살기 때문에, 종(種)의 집단무의식의 법칙성을 고스란히 실현하고 있다.¹⁾ 동물성은 자아중심적 태도가 배제되어 있어서 인간 이하의 본능적 측면뿐 아니라, 인간성을 초월한 신성도 함께 나타낸다. 민담에서 주인공이 동물이 되는 경우 개별적으로 지나치게 강조된 일방적 의식의 태도를 교정하고, 보편적 인간성을 획득할 기회가 된다. 동물이 되어 지내는 동안 주인공은 자연계의 다른 생명체의 의미와 가치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경험을 하기 때문에, 신이한 자연의 지혜를 획득하게 된다. 결국 동물 형상은 상징적으로 집단적, 보편적 삶의 가치를 실현하는 존재이므로, 자아의식에 치유적으로 작용하고, 전체성에 이르도록 기여한다.

민담의 동물 형상들은 모두 무의식의 보상적 내용을 반영하고 있다. 동물의 형상으로 등장하는 무의식의 내용들은 자아의식에 수용되기 어려운 본능적 충동으

접수일 : 2012년 4월 9일 / 심사완료 : 2012년 5월 3일 / 게재확정일 : 2012년 5월 21일

*융학과 정신분석가 분석심리학연구소 소장

1) Birkhäuser-Oeri, S(2003) : *Die Mutter im Marchen*, Verlag stiftung für Jung'sche Psychologie S. 82.

로 이해될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 의식에 대극적이다. 민담에서 다루는 대극의 합일은 자아의식에 의하여 어떻게 무의식적 정신이 수용되고 이해될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그렇지만 주인공이 동물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동물 배우자를 만나게 되는 것도 심한 의식 수준의 저하를 가져오는 심적 사건이다. 동물이었던 주인공이 인간성을 회복하는 것이나, 동물 배우자를 인간으로 변환하게 하는 일은 모두 의식 수준을 회복하는 작업에 해당한다. 동물에서 인간성의 회복이나 인간 수준으로 끌어올리게 될 때, 무의식의 보상적 내용이 의식의 삶에 반영될 수 있다.

민담 <구렁덩덩 신 선비>는 남성 배우자가 구렁이 형상을 하고 있다. 여성주인공이 구렁이를 신랑으로 맞이하여 혼인을 함으로써, 구렁이의 허물을 벗게 한다. 그리고 여러 시련을 겪어내고, 어려운 과제를 완수함으로써 진정한 남녀의 만남을 성공적으로 실현한다. 결과적으로 여성주인공이 신성을 획득하는 것이고, 동물 배우자와의 결합은 신성혼을 의미한다. 우리는 이 민담을 통하여 여성의 자아 의식이 무의식과 관계하여 어떻게 대극의 합일 및 전(全)인격적 실현을 하는지를 살펴볼 수 있다.

중심 단어 : 대극의 합일 · 신성혼 · 남성의 동물 배우자 · 전(全)인격적 실현.

들어가는 말

C.G. 융은 프로이트와 달리 무의식을 억압으로 생겨난다고 보지 않고, 오히려 의식에 기초하고 있는 정신 영역임을 밝혔다. 무의식에서 자아의식이 생성되고, 그 무의식에 의하여 자아의식이 분화 발전한다는 사실에 주목하였다. 그래서 일찍부터 자아의식이 무의식과의 관계에서 어떤 변화를 맞이하는가의 연구에 주력하였다.²⁾ 융은 궁극적으로 자아와 무의식의 관계에서 하나의 통일된 통합적 인격이 되려 한다는 것을 알게 됨으로써, 대극의 합일을 정신 활동의 궁극목적으로 제시하였다.

대극의 합일의 관념은 시지기(Syzygie) 혹은 신(神)의 쌍의 원형에 기초한 선형

2) 융의 1916년 논문 “Die transzendente Funktion(초월적 기능에 관하여)” 및 1928년 논문 “Die Beziehung zwischen dem Ich und dem Unbewußten(자아와 무의식의 관계)”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적 전제이다. 우리는 대극의 합일을 다루는 내용을 꿈, 환상, 민담 및 신화 등 자발적 환상은 물론이고, 문학 작품, 예술작품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대극의 합일을 다루는 내용은 신성혼의 주제인데, 주로 남신과 여신, 왕과 왕비의 결혼으로 그려진다. 이는 분석심리학적으로 자아의식과 아니마 혹은 아니무스의 결합으로 이해될 수 있다. 신화, 민담 등에서 짝을 구하는 것이나 소설 등의 연애사건도 궁극적으로 대극의 합일을 다루는 상징적 묘사에 해당한다. 이런 의미에서 대부분의 성애적 주제, 또한 근친상간적 주제도 대극의 합일에 관한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이 연구의 목적은 민담에서 대극의 합일이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는가를 살펴 보려는 것이다. 민담에서는 대극의 합일을 주로 왕과 왕비의 결혼, 즉 왕가(王家)의 짝짓기(Paarung)로 묘사되어져 있다. 민담의 도입부에 왕이 왕권을 유지하는데 치명적인 문제가 있음을 제시하고, 그 문제를 극복하려는 여러 해결 과정이 묘사된다. 그 과정에서 왕자나 새로운 인물상이 등장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이를 통하여 여성 배우자를 만난다. 민담의 마지막에는 그 새로운 인물상이 왕위를 물려받아 왕과 왕비로 등극한다. 대극의 합일은 ‘그들은 왕과 왕비가 되어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았다’로 완수된다. 대극의 합일은 한 개인에게는 전(全)인격적 실현이자, 신성의 획득이고, 한 집단에서는 집단의 삶을 보증할 새로운 지배원리가 부상하여 기존의 지배원리와 교체되는 결과로 드러난다.

일부 민담에서는 주인공이 왕가의 인물이 아니라, 평범한 개인이 동물 배우자를 맞이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이 경우에는 동물 형상의 배우자를 인간으로 변화시켜야 진정한 남녀의 결합이 실현된다. 이런 짝짓기도 대극의 합일 및 신성혼 주제에 해당한다. 이상의 내용을 한국 민담 〈구렁덩덩 신 선비〉에서 잘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 〈구렁덩덩 신 선비〉는 여성심리학적 관점에서 이해될 것이다.

〈구렁덩덩 신(神) 선비〉

요약 : 나이 많은 부부가 오랫동안 자식 없이 지내고 있었다. 그래서 노부인이 구렁이라도 좋으니 자식을 낳고 싶다고 소원하였다. 그러자 아이를 갖게 되었고, 아이를 낳고 보니 사람이 아닌 구렁이었다. 노부인은 부끄러워 구렁이를 항아리에 담아 뚜껑을 닫아 두었다. 이웃에 사는 부잣집의 세 딸이 소문을 듣고 구경을 하러 왔다. 첫째가 항아리 뚜껑을 열어 보고서는 구렁이를 낳았다고 가버렸고, 둘

째도 똑같이 그렇게 하고 가버렸다. 셋째는 뚜껑을 열어 보고서 구렁덩덩 신 선비를 낳았다고 하였다.

여러 해가 지나 아들은 어머니에게 장가를 들고 싶다고 하였다. 어머니가 곤란해 하자 아들은 오른손에는 칼을, 왼손에는 불을 들고 어머니 뱃속으로 도로 들어가겠다고 협박하였다. 어머니는 할 수 없이 세 딸이 있는 부잣집에 가서 아들과의 혼사를 청하였다. 첫째와 둘째는 거절하였으나, 셋째는 구렁덩덩 신 선비를 신랑으로 받아들이겠다고 하였다. 결혼식 날 저녁 구렁덩덩 신 선비는 허물을 벗고 아주 훌륭한 청년의 모습이 되었다. 이 모습을 몰래 지켜 본 두 언니들은 질투가 나서 견딜 수 없어했다. 신랑은 자신의 구렁이 허물을 색시에게 주면서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태우지 말고 잘 보관하라고 하였다. 만약 그 약속을 어기면 자신과 헤어져 영영 만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일러두었다. 그리고 신랑은 먼 곳으로 여행을 떠났다. 그러자 두 언니들이 놀러 와서 셋째에게 구렁이 허물을 보여 달라고 졸랐다. 셋째는 그 요구에 못 이겨 결국 허물을 언니들에게 보여주었고, 언니들은 그것을 불에 던져 태워버렸다.

색시는 신랑을 기다렸으나, 여행을 떠난 신랑은 돌아오지 않았다. 마침내 색시는 신랑을 찾아 나서게 되었다. 어느 곳에 이르자 발을 갈고 있는 노인을 만났다. 그래서 색시는 노인에게 구렁덩덩 신 선비가 어디로 갔냐고 물었다. 노인은 발을 갈아주면 가르쳐준다고 하여 색시는 발을 열심히 갈아주었다. 그러자 고개 넘어 빨래하는 노파에게 물어보라고 하였다. 빨래하고 있는 노파에게 신랑의 행방을 묻자, 하얀 빨랫감은 까맣게, 까만 것은 하얗게 되도록 빨아주면 가르쳐 준다고 하여 열심히 빨아서 그렇게 해 주었다. 그러자 노파는 다시 고개를 넘어가면 또 다른 노인이 길을 알려줄 것이라고 하였다. 고개를 넘어서 만난 노인은 색시에게 하얀 강아지를 넘겨주며 강아지를 따라 가라고 하였다. 그 강아지를 따라 가니 냇가에 이르렀다. 강아지는 물 위에 놓인 대야에 올라탔고, 색시도 함께 올라탔다. 그러자 처음에는 대야가 뚱뚱 떠내려가는 듯 하더니 어느 새 물 속으로 가라앉았다. 한 참을 물 속으로 내려가더니 다시 물 위로 대야가 떠올랐다. 대야가 도착한 곳에는 새로운 세계가 펼쳐졌다. 그 곳에 큰 기와집이 있었다. 색시는 그 기와집에 들어가 하룻밤을 재워달라고 청하였다. 밤이 되자 선비 한 사람이 마당으로 나오는데 구렁덩덩 신 선비였다. 색시는 신랑을 만나 반가워서 눈물을 흘렸다. 그러나 신랑은 이미 아내가 둘이나 있었다.

다음날 신랑은 세 여인들을 함께 불러놓고 내기를 하여 이긴 사람을 진짜 아내로 삼겠다고 하였다. 첫 과제는 석자 세치의 굵 높은 나막신을 신고 30리 밖에 있는 산에 가서 은 동이에 약수를 가득 길어 오는 것이었다. 그 곳의 두 여인들은 서둘러 다녀오느라 약수 물이 동이에 얼마 남지 않았으나, 색시는 침착하고 조심스럽게 다녀와서 물동이의 물이 가득하여 내기에 이겼다. 다음 과제는 호랑이 눈썹을 세 개 뽑아 오는 것이었다. 색시는 산 속 깊이 들어가서 노파가 살고 있는 오두막을 발견하고 그 곳에서 쉬어가게 해달라고 청하였다. 노파는 색시의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아들이 호랑이이므로 그 눈썹을 구해줄 수 있다고 하였다. 색시는 노파로부터 세 아들인 호랑이들로부터 눈썹을 넘겨받음으로써, 고양이 눈썹을 구해온 다른 두 여인들과의 두 번째 내기에서도 이겼다. 마지막 과제는 추운 겨울에 산딸기를 따오는 것이었다. 색시는 산 속에서 백발노인을 만났다. 그 노인이 안내하는 굴 속에서 딸기밭을 발견하고 딸기를 딸 수 있었다. 딸기를 따러 갔던 두 여인들은 영영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구렁덩덩 신 선비는 색시를 다시 자신의 아내로 받아들였다.

한국 민담 〈구렁덩덩 신 선비〉와 비슷한 유형의 이야기로, 우리에게 〈미녀와 야수〉로 알려져 있는 독일 민담 〈노래하며 날아오르는 종달새(Das singende springende Löweneckerchen)〉와 〈아모르와 프쉬케(Amor and Psyche)〉를 간단히 소개해보겠다.

〈노래하며 날아오르는 종달새〉

요약 : 세 딸을 둔 아버지가 있었다. 그가 먼 여행을 떠나면서 세 딸들이 원하는 선물을 물어보았다. 첫째는 진주, 둘째는 다이아몬드, 셋째는 노래하며 날아오르는 종달새 한 마리를 말하였다.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아버지는 첫째와 둘째의 선물을 사고, 셋째의 선물을 마련하려고 숲 속의 성으로 들어가 종달새를 잡으려 하였다. 그때 어디선가 큰 사자가 나타나 위협을 하였고, 사자의 요구대로 아버지는 맨 처음 자신을 마중 나오는 것을 주기로 약속하고 풀려났다. 맨 처음 마중을 나온 것은 셋째였고, 셋째는 사자와 결혼을 하였다. 사자는 마법에 걸린 왕자였고 이 사실을 신부만 알고 있었다. 첫째 언니의 결혼식 날 셋째는 아버지가 있는 집으로 돌아가 결혼식에 참석하고 성으로 돌아왔다. 둘째 언니의 결혼식에 참석하려 갈 때 셋째는 사자와 함께 가고 싶어 했다. 그들은 새로 태어난 아이와 합

께 떠났다. 다만 양초의 불빛이 사자에게 조금이라도 비치게 되면, 사자는 비둘기로 변하여 7년 동안 비둘기와 다녀야 하므로 주의를 해야 했다. 셋째가 결혼식이 있는 동안 불빛이 없는 방에 사자를 머무르게 해주었으나, 초록색 나무 방안에 금이 있어 빛이 새어 들어가 사자는 비둘기로 변하고 말았다. 셋째는 비둘기를 따라 길을 나섰으나, 그 흔적을 잃어버렸다. 셋째는 하늘에 올라가 해와 달에게 비둘기의 행방을 물었고, 바람에게 물어서 겨우 찾았으나, 왕자는 다른 공주와 결혼을 할 예정이었다. 해님이 준 상자에서 꺼낸 눈부신 예복을 공주에게 주고 신랑의 방에서 잠을 잘 수 있게 허락을 받아 왕자에게 사실을 알리려고 하였으나 실패하였다. 다시 달님이 준 달걀에서 나온 암탉과 병아리를 공주에게 주고 대신 신랑의 방에서 하루 밤을 보낼 수 있게 되었다. 셋째가 잠든 왕자 곁에서 사연을 말하자, 왕자는 모든 사실을 기억해내었고, 두 사람은 재회에 성공하여 행복하게 잘 살았다.

〈아모르와 프쉬케〉

요약 : 옛날 어떤 나라에 아리따운 세 공주가 살고 있었다. 셋째 공주 프쉬케는 너무 아름다워 여신 비너스(아프로디테)로 간주될 정도였다. 실제로 모든 사람들이 그 공주를 여신처럼 칭송하였다. 그래서 여신 비너스는 화가 나서 견딜 수 없었다. 아들 아모르(큐피드)를 불러서 셋째 공주가 가장 천한 사람과 사랑에 빠지도록 만들라고 명했다. 셋째 공주는 아름답기는 하였으나 감히 그녀를 아내로 맞이하려는 사람이 없어 왕은 딸을 위해 신탁을 청하였다. 신탁은 프쉬케에게 장례식과 같은 의미의 결혼식 준비를 하여 산마루의 정해진 바위 위에서 기다리라고 하였다. 그렇게 하자 프쉬케는 황금궁전으로 인도되어 아모르의 아내가 되었다. 프쉬케를 보려고 바위로 찾아 온 언니들을 프쉬케는 자신의 황금 궁전으로 데리고 갔다. 프쉬케는 신랑이 황금 궁전의 주인으로 밤에만 찾아오므로, 신랑의 실제 모습을 본 적은 없다고 하였다. 질투가 난 언니들이 프쉬케로 하여금 촛불을 켜서 신랑의 모습을 보도록 부추겼다. 촛불 아래에서 아모르의 훌륭한 모습을 지켜보다가 프쉬케는 실수로 뜨거운 기름 방울을 그의 오른쪽 어깨에 떨어뜨렸고, 이로써 아모르는 사라져 버렸다. 비너스의 곁에서 아모르가 상처를 치유하는 동안 프쉬케는 아모르를 찾아 나섰다. 마침내 프쉬케는 비너스 앞에 끌려가게 되었다. 비너스는 첫 번째 과제로 밀 보리 줍살 겨자씨 등을 섞어 놓은 곡식들을 종류별로 가려 놓도록 시켰다. 아모르가 개미떼를 불러 도와주었다. 두 번째 과제는 성스러

운 강 근처에서 놀고 있는 황금의 양떼들에게서 황금 털 한줌을 얻어내는 것이었다. 강 옆에 있던 갈대가 잘 가르쳐 주어서 황금 털을 구했다. 세 번째 과제는 큰 바위 아래 황천 밑에 흐르는 찬물을 작은 독에 길어오는 것이었다. 다시 아모르가 대신 그 물을 떠 주었다. 마지막 과제로 죽음의 세계에 있는 프로셀피나에게 가서 아름다운 용모를 유지하게 하는 것을 가져오도록 시켰다. 프쉬케는 프로셀피나로부터 받은 소쿠리를 갖고 명부에서 돌아오다가 몰래 소쿠리를 열어 보았다. 그 로인하여 아름다움 대신 그녀에게 죽음이 찾아오게 되었다. 신들은 프쉬케에 대해 의논을 하였고, 상처를 나은 아모르와 프쉬케를 혼인시키고, 프쉬케를 신의 세계에 속하게 하였다.

그림 형제가 수집한 독일 민담 〈노래하며 날아오르는 종달새〉에서는 신랑의 모습에 동물(사자)이라는 점과 두 언니에 의하여 질투를 받는다는 점에서는 매우 유사하나, 여성 주인공은 부성상과 관계된 인물이므로, 부성 콤플렉스가 있는 여성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아모르와 프쉬케〉는 그리스 작가 아풀레이우스(Apuleius)가 자신의 소설 속에서 소개하였으므로, 아모르와 그의 어머니 비너스의 관계를 고려하여 모성 콤플렉스가 있는 남성주인공의 이야기로 이해될 수 있다.³⁾ 그럼에도 아풀레이우스가 당시에 떠돌아다니는 이야기를 채록했다는 점에서 여성 주인공 프쉬케의 입장에서 해석이 가능하므로, 어떤 점에서 〈구렁덩덩 신 선비〉와 상당히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아모르와 프쉬케〉를 여성 심리학적으로 본다면 여성의 아니무스가 모성상과 심하게 밀착되어 있어서, 여성 자아가 아니무스를 의식적 수준으로 끌어올려 관계하기 어렵다는 사실도 잘 드러나 있다. 비록 비너스(모성상)가 아들을 지지하면서 여성주인공인 프쉬케를 괴롭히지만, 궁극적으로는 프쉬케를 자신과 같은 신성의 존재가 되도록 종용하는 힘으로 작용한다. 여기서 아모르는 여성의 아니무스로서 인간이 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인간 프쉬케가 아모르와의 만남을 실현하려 함으로써 신성을 획득하게 된다. 이로써 아모르와 프쉬케는 신의 쌍(Götterpaar)이 된다(신성혼이 이루어진다).

3) 아풀레이우스는 자신의 소설 〈황금 당나귀(Der Goldene Esel)〉에서 당시에 민간에서 떠도는 이야기 〈아모르와 프쉬케〉를 삽입하여 소개하였다. E. 노이만이 이 이야기를 프쉬케 입장에서 해석하였다. 폰 프란츠 여사는 소설 속에 삽입된 것이라면 남성 주인공의 입장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M.-L. von Franz의 〈Der Goldene Esel〉, 그리고 E. Neumann의 〈Amor and Psyche〉를 참고하길 바란다.

시지기(Syzygie)⁴⁾ 원형으로서의 노(老)부부

민담의 해석을 시작하기 전에 이야기의 전개에 앞서 대극의 합일을 미리 전제하고 있음을 지적해야겠다. <구렁덩덩 신 선비>의 도입부 첫 장면에 노부부가 등장한다. 노부부는 소위 구렁덩덩 신 선비의 부모이다. 일반적으로 부모상은 초기 아동기 삶의 기초가 되는 인물상이다. 그래서 어쩌면 이 장면이 부모상에 의존해 있는 유아기적 상태를 묘사하는 것처럼 보일 것이다. 그러나 민담을 여성주인공 중심으로 본다면, 노부부는 주인공의 아동기의 부모상이 아니라, 성인기의 부모상으로 이해될 수 있다. 부모상은 아동기에는 지지와 보호를 제공하는 중요한 원형들이지만, 자아가 주도하는 사춘기 이후에는 배경으로 물러나 영향력을 거의 행사하지 않게 된다. 부모상과의 분리를 성공적으로 실현한 성인기에 이르면, 부모상은 아니마나 아니무스의 부모상으로 등장한다. 민담 <구렁덩덩 신 선비>에서 처럼 아니무스의 부모상으로 그려지는 노부부는 대극의 합일을 유도하는 시지기 원형으로 작용한다.

시지기 원형은 남녀로 드러나는 대극을 하나로 묶는, 융합의 관념을 생산하는 전형적 원형이다. 우리는 의식적으로 의도하지 않아도 이 시지기 원형에 의하여 대극의 합일을 구하려는 상태에 이르게 된다.

… 융합의 관념은 … 신화소(Mythologem)로서 대극의 합일의 원형을 표현하며, 이로써 신비적 융합(unio mystica)의 상이 된다. 원형은 매번의 형상을 드러낼 때 환경에서 얻은 인상들의 도움을 받고는 있지만, 결코 외적인 것, 비(非)심혼적인 것을 묘사하지 않는다. 오히려 원형은 외적으로 형성된 것과는 상관없이, 비개인적 심혼의 삶과 본질을 묘사한다. 그것은 각 개인이 태어날 때 이미 갖추고 있는 것으로, 개인 인격에 의해 수정되거나, 자신의 산물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⁵⁾

시지기 원형은 동양의 음양(陰陽)과 같이 서로 대극적이지만 언제나 함께하는 한 쌍의 원리와 같은 것이다. 시지기 원형은 우주론적으로 남녀 신(神)의 쌍, 천상과 대지, 해와 달의 결합으로, 민담 등에서는 왕과 왕비의 결합으로 표현되어 왔다. 중세 연금술사들은 서로 다른 두 특성의 합일을 강조하기 위하여 둘이라는 의

4) 시지기(Syzygie)는 신의 쌍으로 번역할 수 있다.

5) Jung CG(1946) : “Die Psychologie der Übertragung”, GW16, Par. 354.

미의 레비스(Rebis), 양성체인 헤르마프로디투스(Hermaphroditus)로 묘사하였다. 시지기 원형은 대극의 쌍을 나타내는 형상화뿐 아니라, 또한 융합을 위한 관계들의 심혼적 역동이기도 하다. 소위 조화롭게 결합되어져 있을 때는 둘이 하나가 되어 전체를 이루지만, 어떤 움직임이 시작되면 서로 다른 것으로 분열되고, 심지어는 양립할 수 없는 대극적 상태가 되었다가, 다시 하나로 통합하려 작용하는 관계의 역동 전체에 해당한다. 이러한 시지기 원형에 기초하여, 자아의식은 무의식으로부터 분리 및 분화가 가능하며, 심지어는 대극적으로 발전하였다가, 다시 무의식과의 결합을 지향하게 된다.⁶⁾

모든 시기의 근친상간적 관계도 시지기 원형에 기초한다. 여성 자아에 대한 부성 및 부성상의 관계, 남성 자아에 대한 모성 및 모성상의 관계, 심지어 오누이 관계에서, 시지기 원형이 작용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자아의식의 대극적 내용이 이성의 부모나 자녀에게 투사됨으로써 근친상간적 관계가 되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딸-아버지, 아들-어머니, 자매-형제의 근친상간적 관계는 성애적 욕망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대극의 합일을 목적으로 하는 상징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 우리는 무의식 속에 이미 정동적으로 채워진 내용이 있어서 어떤 순간에 투사하게 된다는 가설을 외면할 수 없을 것이다. 그 내용은 시지기의 주제인데, 그것이 남성적이면 동시에 항상 그에 해당되는 여성성이 부여되어 있음을 나타낸다. 이 주제는 널리 퍼져 있으며, 정동성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래서 이 주제는 근본적인 것이며, 실제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개별적인 정신 치료나 심리학자에게 이 심적 요소는 언제나 작용하고 있다. …⁷⁾

아동기의 근친상간적 관계를 시지기 원형과 관련시켜 좀 더 살펴보면, 여성 자아든 남성 자아든, 의식적 분화에 의하여 자아의 입장이 구체화되면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신의 쪽으로 이성의 부모상이 배열되어 근친상간적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이런 근친상간적 주제에서 쌍을 이루게 된 이성의 부모상은 시지기 원형에서 비롯된 심상으로 실제 부모에 관한 것이 아니다. 더구나 신의 쪽으로서의 모성상 혹은 부성상은 아동기 초기, 거의 1~4세 사이에 형성되므로 성

6) 여기서 원형의 효과, 즉 원형이 유도하려는 목적에 주목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하기 바란다.

7) Jung CG(1936) : “Über den Archetypus mit besonderer Berücksichtigung der Anima-begriffes”, GW9/I, Par. 134.

애적일 수 없다.⁸⁾ 그럼에도 시지기 원형에 의해 아동들은 이성의 부모에 대해 실제로 강한 정서 반응을 하게 되고, 특별한 유대감을 경험하는 것이다. 부모들도 그런 내용의 투사를 받아 자신도 모르게 특별한 관계를 강요당한다. 이는 내용적으로는 초개인적 존재가 되라는 요구에 무의식적으로 응하는 것이 된다. 그런 내용을 투사하고 있는 당사자도 원형상과 동일시되어 인간적 특성을 상실할 수 있다.⁹⁾

대부분의 아동기들은 이성의 부모에게 신의 쌍의 이념을 투사하여 절대적인(신적) 의미와 가치를 경험하다가, 점차 실제 부모의 개인적 인간적 모습이 인식되기 시작하면 실망과 더불어 투사를 거두어들인다. 사춘기 자아는 외부의 이성에게 다시 원형적 내용을 투사하게 된다. 이런 투사가 젊은이들의 실제적 남녀 관계를 형성하는 원동력이 된다. 그래서 사춘기의 남녀 관계를 잘 살펴보면, 이성의 상대에 대해 인간성을 뛰어넘는 특별함에 매혹되어 투사로서 관계를 맺는다. 이성의 상대에 대한 과대평가, 현혹, 열망의 상태에 이르는 것도 모두 시지기 원형에서 비롯된 것이다. 투사에 의한 외부의 이성 대상에 대한 관계가 형성되는 것은 물론이고, 동시에 내부에서는 아니마, 아니무스가 형성된다. 아동기의 신의 쌍이었던 이성의 부모상이 물러나고, 자아는 새로운 인물상, 즉 아니마, 아니무스와 쌍을 이루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외부의 실제적 남녀 관계도, 내부의 아니마, 아니무스의 형성도 모두 대극의 쌍이 되도록 하는 시지기 원형에 기인한다.

그밖에 심리치료 현장에서 나타나는 전이의 현상에 대해 흔히들 내담자의 아동기의 근친상간적 관계를 치료자와의 관계에서 재현하고 있다고 한다. 앞서 근친상간적 관계가 시지기 원형에 기인한 것처럼, 치료현장에서의 전이도 내담자가 치료자에게 신의 쌍에서 비롯된 내용을 투사하고 있는 것에 해당한다. 이런 의미에서 융은 전이의 문제를 대극의 합일 및 신성혼 주제로 다루고자 하였다. 융은 전이의 현상에서 치료자와 내담자 모두 활성화된 무의식과 관계함으로써, 인격의 변화를 맞이 할 기회가 되고, 궁극적으로는 전(全)인격적 실현을 이룰 수 있음

8) 같은 책, Par. 135.

9) 같은 책, Par. 138. 융은 한 남성의 모성 콤플렉스에 관해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그러니까 어머니는 분명 처음부터, 다시 말해 초기 유아기 이래로 신의 짝, 또는 남녀의 융합의 원형에 의해 동화되었고, 그래서 완전한 초개인적 모습으로 나타났다. 이 특성은 항상 원형에 속하는 것이다. 그래서 원형이 낯설고 의식에 속하지 않는 것이라는 근거가 된다. 또한 그것은 동시에 내용적으로 신적이라고 할 전능한 존재가 되라는 무의식적 요구가 된다. 원형을 동일시 하였을 경우, 흔히 그것은 파괴적 인격변화, 대개 과대망상 또는 과소망상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을 제시하였다.¹⁰⁾

다시 강조하면, 시지기 원형은 근친상간적 관계, 전이 등의 원인이 되지만, 궁극적으로는 신성혼, 대극의 합일을 유도하는 선험적 조건의 상징을 생산한다. 이러한 선험적 전제 조건에 기초하여 자아의식에 대한 상대적 보완적 내용들이 무의식에서 준비되고 형상화되어 등장한다. 자아의식이 그러한 무의식의 보상적 내용을 알아차리고, 무의식과 제대로 관계한다면, 궁극적으로 하나의 통합된 통일체적 인격을 실현할 수 있게 된다.

민담 해석

1. 노부부가 마침내 임신하였고, 구렁이 아들을 낳았다.

이 민담에서 주인공은 여성이지만, 이야기의 시작은 구렁덩덩 신 선비의 탄생으로 시작한다. 여성심리학적 관점에서 보면 구렁덩덩 신 선비에 관한 것은 의식의 내용이 아니다. 그것은 여성 자아가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는 무의식적 내용에 해당한다. 이미 살펴보았듯이 노부부는 시지기 원형으로 여성의 내부 깊은 심층부에서 대극의 합일을 위해 무엇인가를 고려하고 있는 정신 영역이다. 그것은 구렁이라도 좋으니 아이를 가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표현되었다. 노부부에 의해 등장할 아이는 무의식의 보상적 기능에서 비롯되는 것이고, 전체성을 위해 고려된 것이다. 무엇보다도 그것은 여성 자아에 대한 대극의 쌍, 아니무스의 등장이 될 것이다.

노부부의 바람에 의해서 수태되고, 탄생하게 되는 것은, 그것이 동물이든 사람이든 모두 정신적으로 창조된 것을 의미한다. 말하자면 심상의 착상과 형상화의 실현을 의미하게 될 것이다. 만약 인간의 형상으로 탄생하였다면 의식에 알려질 수 있고, 의식화가 가능한 내용의 심상이 될 것이다. 아직 의식에 알려질 수 없는 수준이므로 동물의 형상으로 나타나는데, 여기서는 특별히 구렁이라는 형상으로 표현되었다. 이 구렁이 형상은 남성의 모습으로 구체화되어, 여성에서의 남성성, 즉 아니무스가 된다.

구렁이의 형상으로 드러난 아니무스를 살펴보자. 우선적으로 구렁이는 어찌든 가장 하위의 본능에서 비롯된 것의 형상화라고 할 수 있다. 대지에서 스스로 어떤

10) 융의 1946년 논문 “Die Psychologie der Übertragung(전이의 심리학)”을 참고하라.

활기를 갖고 움직이기 시작한 에덴 동산의 뱀처럼, 구렁이는 오랜 기다림이 있은 후, 마침내 어떤 무의식의 움직임이 시작된 것의 형상화이기도 하다. 혹은 쿤달리니 요가에서의 뱀처럼 가장 기본이 되는 정신-육체의 활력에 관한 것일 수 있다. 뱀은 냉혈동물로서 인간과 거리가 먼 생물체이므로, 아직 의식에 알려지기 어려운 것, 의식에 전혀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 알려질 기회가 있더라도 성애적 충동으로 여겨지는 등, 잘못 인식되거나 제대로 수용될 수 없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구렁이 형상은 여성 의식에서 알아차릴 수 없는 상태의 것을 나타낸다. 또한 구렁이 형상은 아니무스와 여성 의식과의 거리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꿈이나 환상에서 등장하는 구렁이의 형상들은 의식과 매우 동떨어진 무의식을 표명한다. 현대의 여성처럼 자아의식이 자신의 본성과 단절되어 있다면, 그에 대한 무의식의 보상적 내용은 가장 이질적이고, 낯설고, 심지어는 위협적으로 느껴지는 형상으로 등장한다. 실제로 임신을 원하고 있으나 성공하지 못했던 어떤 여성의 경우 꿈에 뱀들이 등장하자 막대기로 사정없이 제거하곤 하였다. 이 경우에도 뱀의 형상은 보상성을 반영한 것이다.

비록 노부부가 간절히 바랬지만, 인간의 형상이 아니라 구렁이 형상이므로, 노부인은 구렁이를 항아리 속에 넣어 뚜껑을 닫아 놓았다. 노부인이 항아리 속에 구렁이를 넣어 둔 것은 구렁이의 존재를 부정한 것이 아니다. 구렁이의 존재는 아직 여성주인공의 의식에 알려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노부인의 부끄러움은 의식적 상황과 전혀 관계가 없다. 노부인이 항아리에 넣어두는 것은 의식에 알려질 형상화를 위한 무의식의 또 다른 준비를 의미한다. 그래서 구렁이를 넣어둔 항아리는 다음의 형상화를 위하여 머무는 곳, 때가 되면 형상적 변환을 꾀할 수 있는 곳, 정신적 탄생이 일어날 모성적 자궁에 해당한다. 심지어 구렁이를 낳은 노부인이 항아리와 동일시 할 수 있는 모성 자궁에 해당한다. 항아리에 넣음으로써 구체화를 위한 특정의 모성 자궁이 지정이 되었으므로, 형상화가 임박했음을 나타낸다.

비록 모성상에 의하여 수태 및 탄생이 이루어졌고, 형상적 구체화를 위하여 항아리 속에 보관되었지만, 구렁이는 분명 모성적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를 반영한 형상이다. 모성 숭배 제의에서 등장하는 아들신을 뱀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다. 모성신과 아들신 모두 뱀의 형상을 함으로써, 아들신이 여전히 모성신에 속한 것임을 보여준다. 뱀 형상의 아들은 모성신의 남근으로 모성에서 비롯된 남성성을 의미하면서, 동시에 모성과 분리되려고 움직임을 시작하는 것을 나타

낸다.¹¹⁾ 이런 의미에서 이 민담의 구렁이-아니무스도 모성상에 속해 있으며, 또한 모성상과의 분리를 시도할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2. 이웃집 세 딸이 구렁이를 보러 왔고, 구렁덩덩 신 선비라고 불렀다.

노부부가 아기를 낳았다는 소문에 이웃의 부잣집 세 딸이 구렁이를 구경하러 왔다. 노부부가 비록 형상화에 전적으로 성공하지는 않았지만, 새로운 정신을 탄생시킴으로써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이다. 이웃의 세 딸이 구경을 하러 온 것은 비로소 여성 의식이 미묘한 변화를 감지하였기 때문이다. 세 딸의 방문은 여성 의식이 자신에게 일어난 내면의 변화를 놓치지 않고 주목하는 여성 자아의 내향적 태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여기서 세 딸은 모두 여성 주인공에 해당한다. 결과적으로 세 번째, 즉 막내딸이 전체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지만, 세 딸들의 모습은 여성 의식의 태도 전체를 의미할 수 있다. 민담에서 세 형제 혹은 세 자매의 모습은 열등기능을 제외한, 의식의 분화된 세 기능들에 해당한다. 막내는 두 보조 기능 중에 상대적으로 가장 덜 분화된 기능으로서, 네 번째의 열등 기능이나 무의식과 친화력을 갖고 있다. 우리는 여기서 대극의 합일, 즉 전체성을 나타내는 4의 숫자 상징을 고려할 수 있다. 세 딸은 의식의 분화된 주도적 기능들이고, 구렁덩덩 신 선비는 네 번째 요소로서 보상적이지, 대극적 내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민담의 내용은 세 딸들이 분화된 여성 의식 전체를, 그에 대해 구렁덩덩 신 선비는 아니무스로서 서로 대극의 쌍이 되는 구조로 구성되어 있다.

비록 첫째와 둘째가 단지 뚜껑을 열어보고 구렁이를 낳았다고 가버렸으나, 뚜껑을 열었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하다. 심지어 '구렁이를 낳았구나'라는 언어적 표명도 의식화를 위해서는 의미있는 태도이다. 세 자매가 찾아와 달아 둔 단지 뚜껑을 열고 어떤 존재가 있음을 알아차린 것은, 내향화된 자아의식이 보다 더 무의식에 접근하여 실제적 경험을 하는 것에 해당한다. 이는 마치 예술가들이 자신의 내부에서 올라오는 창조적 충동을 주목하여, 어떤 형상으로 끌어낼지 고심하는 것과 같다.

구렁이가 탄생하자 세 딸이 직접 찾아와 단지 뚜껑을 열고 들여다 보는 것, 이것은 여성 자아가 아니무스와의 관계를 위해 취하는 적극적 수용적 태도이다. 여기서 노부인은 모성상으로서 여성 자아가 발휘하는 수용력의 기초가 된다. 이 민

11) Neumann E(2004) : *Ursprungsgeschichte des Bewußtseins*, Patmos-Verlag, S. 61.

담에서 보듯이 모성상은 구렁이를 담고 있는 항아리와 같이 의식에 알려질 형상을 준비하는 과정 전체를 제공한다. 그래서 여성 의식이 긍정적 모성상에 기초하고 있음은 여성의 대극의 합일을 위해 필수적 요건이다.

첫째와 둘째가 겨우 구렁이의 존재를 확인했다면, 셋째는 더 나아가서 구렁이의 이름을 불러주었다. 구렁이의 이름을 지어줌으로써, 마침내 항아리 밖으로 그 존재가 드러나게 되었다. 구렁이가 항아리 밖으로 나오게 되는 것은, 드디어 의식에 알려질 형상화가 가능해졌음을 의미한다.

이름을 갖게 되는 것을 좀 더 살펴보자. 실제로 우리는 탄생과 더불어 이름을 갖게 되고, 그 이름에 개인의 모든 특성을 부여한다. 말하자면 이름으로 한 사람이 고유한 개별적 특성을 드러낸다. 우리는 하나의 이름으로 개별적 존재를 형상적으로 구체화한다. 하나의 이름, 특정의 이름이 어떤 존재를 드러내는 형상화에 해당한다. 이름을 갖는 것은, 의식에 알려지는 것, 즉 의식과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된 것에 해당한다. 또한 이름을 부여하는 행위는 작가나 예술가가 창조적 충동을 마침내 작품으로의 형상화에 성공한 것과 같다. 이름을 부여한 사람은 이름을 갖게 된 존재에 대해 창조주와 같으므로, 그에 대한 특별한 관계는 물론이고, 그에 대한 어떤 권한도 가질 수 있다. 말하자면 그 존재의 리비도를 점유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셋째는 구렁이와 특별한 관계가 가능하게 된 것이다.

무엇보다 흥미로운 것은 셋째가 구렁이를 ‘구렁덩덩 신(神) 선비’로 불렀다는 것이다. 이름이 나타내듯이 형상화 된 것은 구렁이지만, 신성을 갖춘 존재, 심지어 높은 학식을 갖춘 남성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우리는 여기서 아니무스가 동물 영역, 인간, 그리고 신의 영역을 모두 망라한 특성이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실제로 아니무스는 인간 이상이거나 인간 이하를 관통하는 초개인적 존재이다. 구렁이의 형상을 앞서 지적한 대로 의식에 아직 알려지지 않은 모습으로 이해해 본다면, 신 선비는 변환에 의하여 정신적 가치는 물론이고, 심지어 신성함에 이르게 될 것임을 의미한다.¹²⁾ 비록 셋째가 구렁이에게 이름을 부여하여 바야흐로 여성 의식과 아니무스의 연결이 가능하게 형상화 되었으나, 사실상은 둘의 결별이 예고되어 있다.

3. 구렁덩덩 신 선비가 셋째와 혼인하였고, 구렁이 껍질을 벗었다.

구렁덩덩 신 선비라는 이름을 갖게 된 아들은 항아리 밖으로 나오게 되었고, 마

12) 아니무스가 인물상으로는 남성이지만, 실제로는 여성의 정신적 활동의 특성에 해당하거나, 무의식과 연결하는 매개적 역할을 하는 직관적 기능이다.

침내는 어머니에게 장가를 보내달라고 하였다. 셋째인 여성 자아가 이름을 지어 주어 관계의 가능성을 마련하였다면, 이번에는 아니무스가 그 관계를 실현할 수 있게 어떤 요청을 하고 있다. 대극의 합일을 위하여 의식의 태도는 무의식에 대한 수용적 태도로서 시작한다. 또한 그에 대한 반응으로 무의식도 관계를 위한 어떤 요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잘 드러나 있다. 이처럼 대극의 합일은 자아 의식과 무의식의 협동적 작업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구렁덩덩 신 선비는 자신에게 짝을 찾아주지 않으면, 오른손에 칼을 들고 왼손에는 불을 들고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가겠다고 위협하였다. 여기서 구렁덩덩 신 선비의 모습이 칼과 불을 든 것으로 구체화되었다. 구렁덩덩 신 선비의 칼과 불은 낡은 모성을 해치는 도구가 아니다. 오히려 여성의 정신적 능력을 활성화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여성의 오성의 능력이나 판단력 등을 발휘하게 할 아니무스의 특성을 형상화 한 것이다. 칼은 가르고 자르는 도구이므로 구분이나 분별을 할 수 있게 하며, 불은 환하게 밝힘으로써 인식과 통찰을 할 수 있게 한다. 또한 불이 가진 열기와 같은 열정으로 무엇인가를 능동적으로 추진하게 한다. 말하자면 칼과 불은 여성 의식으로 하여금 합리적 이성적 사고를 할 수 있게 하고, 판단력, 결단력 및 추진력을 갖게 하는 정신 활동의 특성을 나타낸다.

구렁덩덩 신 선비가 칼과 불을 들고 다시 어머니 뱃속으로 들어가겠다는 것은, 여성 의식과 제대로 연결되지 않는다면 이상의 정신적 특성이 결코 발휘될 수 없을 것임을 강조한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여성의 아니무스는 정신 활동의 동인이 되는 중요한 원형임을 알 수 있다. 여성은 아니무스와의 관계에서 이성적 사고 활동에서 비롯된 분별력이 생기고, 보편적 이념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 어쩌면 냉혈동물인 구렁이의 형상으로 등장한 아니무스는 따뜻한 온기의 여성 의식에 반해, 차가운 이성적 정신 능력에 대한 상징이 될 수도 있다. 동시에 칼과 불을 들고 있는 구렁덩덩 신 선비의 형상은 모성상과 구분하려는 내용의 상징이 된다. 구렁덩덩 신 선비의 모성상에 대한 위협은 자신의 고유함을 획득하기 위한 아니무스의 적극적 태도에 해당한다. 모성상과 아니무스의 구분이 이루어져야 자아의식과 제대로 관계를 맺을 수 있다.

구렁덩덩 신 선비가 혼인을 하고 싶어 하자 노부인은 청혼을 하러 세 딸이 있는 집으로 찾아갔다. 여기서 다시 한번 모성상이 여성 자아와 아니무스의 연결을 위해 매개적 역할을 하고 있다. 첫째와 둘째는 혼인을 거절하였지만, 셋째는 수락하

였다. 앞에서도 지적하였듯이, 혼인의 수락의 과정도 여성 의식의 점진적인 태도 변화에 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셋째는 집단 의식에 덜 몰들어서 상대적으로 대극이 될 수 있는 무의식의 성향을 보다 더 잘 수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미 이름을 부여함으로써 이미 관계를 맺을 가능성을 갖고 있었다. 구렁덩덩 신 선비와 셋째의 혼인은 비로소 여성 의식이 아니무스와 연결되었음을 나타낸다. 이로써 아니무스가 의식에 제대로 알려질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 구렁덩덩 신 선비와 셋째의 혼인은 여성 자아와 아니무스와의 만남에 해당하는데, 이는 마침내 자아의식이 아니무스를 인식할 수 있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눈에 두드러지는 사실은 민담이 처음에는 구렁덩덩 신 선비 중심의 이야기였다가, 셋째와의 혼인이 이루어지자 셋째 딸을 여성주인공으로 내세워 전개되다는 사실이다. 이런 민담의 이야기 방식을 고려한다면, 혼인에 의하여 구렁덩덩 신 선비가 여성 의식과 연결되었고, 이로부터 이야기는 의식 수준에서 아니무스가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다루고 있다고 하겠다. 이제 아니무스는 여성 의식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게 된 것이다. 혹은 여성의 자아의식은 아니무스와의 관계에서 비로소 개별 인격적 특성을 발휘할 수 있는 대표주자가 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혼인한 첫 날 밤에 구렁덩덩 신 선비는 드디어 구렁이 껍질을 벗고 사람이 되었다. 이로써 아니무스는 의식과의 관계에서 실질적인 존재의 의미를 획득하였다. 구렁이의 껍질을 벗고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여성주인공과 진정한 만남이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민담에서 보여주듯이 아직 대극의 합일에 도달한 것은 아니다. 이는 겨우 여성 자아가 경험의 주체로서 비로소 객체에 대해, 대상에 대해, 파트너에 대한 의식적 인식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말하자면 자아의식이 이제야 아니무스를 객관적 실체로서 경험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아니무스를 진정한 객체로 인식되는 것이야말로 대극의 합일을 위해 필수적이다. 따라서 셋째와 구렁덩덩 신 선비의 혼인 그 자체는 대극의 합일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자아의식이 합일을 위한 기본적 태도, 즉 대극을 인식할 수 있는 의식 수준에 이르렀음을 나타낸다.

4. 구렁이 껍질이 태워졌고, 셋째는 구렁덩덩 신 선비를 찾아 나섰다.

혼인과 더불어 구렁이의 허물을 벗자, 구렁덩덩 신 선비는 허물을 태우지 말고

잘 보관하도록 당부하고 멀리 떠났다. 구렁덩덩 신 선비가 허물을 없애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의식화의 지속적인 진행을 저지하는 태도로 여겨진다. 실제로 자아의식이 자신의 고유한 입장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상태이면, 자신도 모르게 무의식의 요구와 동일시되어 수행하게 된다. 자아가 자신의 입장을 의식하고 무의식을 객체로서 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더구나 대극의 합일을 지향하기 위해서는 무의식과의 구분은 필수적이다. 이런 의미에서 첫째와 둘째의 일관성 있는 의식적 태도, 즉 무의식에 대한 부정과 거부의 태도는 의의가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막내는 상대적으로 무의식과 친화력이 있어서 접근도 쉽지만, 동시에 무의식과 동일시도 쉽게 이루어진다. 구렁이에 대해 꺼려하는 첫째와 둘째에 의하여 무의식의 요구나 의도에 동화되지 않고, 그나마 여성 자아의 의식적 태도를 독립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첫째와 둘째가 구렁이의 껍질을 태움으로써, 더 이상 무의식적 동일시가 불가능해졌다. 구렁이의 껍질을 태움으로써 무의식과의 구분, 아니무스와의 구분이 더욱 분명하게 요구되었다. 여기서는 껍질을 태움으로써 구렁덩덩 신 선비와 헤어지는 것으로 표현되었다. 혹은 허물을 벗은 신 선비가 멀리 떨어져 있는 것도 이미 실제 여성 의식 수준에서 보면 아니무스와 엄청난 거리감이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냉혈동물의 껍질을 불로 태워버리는 것은 전체적으로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작업에 해당한다. 불을 이용하는 태도는 파괴하는 행위만은 아니다. 불은 용해, 분해를 통해 변환을 가져오는 창조적 과정을 제공한다. 여성들은 불을 다루는 동안 보다 능동적이고 열정적인 주체로 변신한다. 또한 불에 의해 구렁이 껍질이 태워짐으로써 무의식이 점유하던 에너지가 의식에 흘러갈 가능성이 주어졌다.

위의 내용을 다시 한 번 정리해보자. 여성 의식이 대극으로서 아니무스를 만난다는 것은 무의식적 동일시에서 벗어나 객관정신으로 인식되어야 가능하다. 아니무스(아니마도 마찬가지로)와 구분이 되어야 대극적 관계에 이른다. 여성에 기초하고 있는 모성상에서 아니무스가 착상하여 형상적으로 구체화되어 의식에 접근하고 있듯이, 내면에서 비롯되는 아니무스를 의식화하는 것, 즉 객관화 하는 것은 쉽지 않다.¹³⁾ 특히 이 민담에서 잘 드러나 있듯이 모성상에서 비롯된 아니무스

13) Jung CG(1928) : “Die Beziehung zwischen dem Ich und dem Unbewußten”, GW7, Par. 269. 용은 자아가 페르조나와의 구분을 해야 하는 만큼 무의식적 상들의 암시적 강제력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는 여성 자아와 구분하기가 매우 어렵다. 아니무스를 객관 정신으로 인식하는 것도 먼저 여성 자아가 모성상과의 구분이 될 때 가능할 것이다. 민담에서는 모성상을 특별히 이웃집 노부부 혹은 구렁덩덩 신 선비의 어머니로서 묘사하여 구분하고 있다. 다시 한 번 강조하면, 부모상과의 구분 및 아니무스의 객관적 인식은 개별 인격의 실현을 위한 기본 요건이다.

구렁이의 껍질이 태워지자 여성주인공과 구렁덩덩 신 선비는 서로 헤어지게 되었다. 이제 셋째는 구렁덩덩 신 선비를 찾기 위하여 집을 나섰다. 셋째가 구렁이 껍질을 태운 것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 집을 떠나는 것, 모두가 여성 자아가 개별 인격의 주체로서 주도적 입장을 갖추었음을 반영하고 있다.

5. 셋째는 여러 대가를 치렀고, 마침내 구렁덩덩 신 선비를 만났다.

셋째는 사라진 신랑을 찾기 위하여 길을 떠났다. 밭을 갈고 있는 노인에게 구렁덩덩 신 선비의 행방을 물었다. 노인은 색시가 밭을 갈아주면 가르쳐주겠다고 하였다. 노인은 색시에게 밭을 대신 갈게 하였지만, 결과적으로 색시로 하여금 의식의 적극적 수행을 유도한다. 또한 밭갈이를 시킴으로써 여성주인공이 기본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일깨워 준다. 그리고 색시로 하여금 대지를 일구어 의식의 삶을 풍요롭게 할 수 있는 생산 활동의 주체가 되도록 한다.

이어서 색시는 노파를 만나 빨래를 빨아주어야 했다. 빨래는 기본적으로 자아 의식의 정화 및 쇄신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색시는 흰 빨래는 검게, 검은 빨래는 희게 빨아야 했다. 이는 의식의 태도를 완전히 전환해야 한다는 요구이다. 심지어 이것은 자아의식을 희생하듯이, 기존 가치관을 완전히 버리도록 훈련시키는 효과가 있었다. 이러한 자아의식의 완전한 가치관의 전도는 다음 이행과정에서 유리하게 작용하였다.

다음으로 색시는 흰 강아지를 따라가야 했다. 개는 가축으로서 인간에게 가장 친화적이지, 또한 가장 충직한 동물이다. 색시가 기꺼이 강아지의 뒤를 따르는 것은 여성 자아의식의 태도가 무의식과 동등한 수준으로 내려갈 준비가 되었음을 보여준다. 동물의 인도에 따른다는 것은 의식의 주도력을 무의식에 넘기는 것에 해당한다. 마치 눈을 가리고 본능적 신체 감각으로 길을 찾는 것과 같다. 이는 자아가 자신의 의지력과 판단력을 모두 내려놓고, 어둠의 세계, 죽음의 세계에 진입하도록 내맡기는 것이다. 그래서 앞서 의식의 태도 변화, 가치관의 전도는 매우 중요

하였다. 결국 강아지에게 길을 안내하도록 하는 것은 자아의식의 희생에 해당한다.

상징적으로 개는 이승과 저승의 경계에서 문지기 역할을 하는 존재이다. 이 민담에서도 개는 이승과 저승의 경계를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그것은 강아지와 색시를 태운 대야가 물속에 잠겼다가 다시 떠오르는 장면으로 묘사되었다. 강아지의 인도에 따라 색시는 대야에 올라타고, 물속으로 하강하는데, 이는 이승과 저승의 경계, 의식과 무의식의 경계를 넘는 것과 같다. 물속으로 하강하였다가 떠오르는 것은 주도력이 의식에서 무의식으로 완전히 넘어간 것을 의미한다. 경계를 넘자 그곳은 구렁덩덩 신 선비가 사는 곳, 무의식이 펼쳐는 세계가 되었다.

색시가 구렁덩덩 신 선비를 만나려 한 것은 결국 무의식과의 실제적 접촉을 시도하는 것에 해당한다. 무의식과의 접촉은 자아의식의 주도력을 포기하고 본성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것이다. 무엇보다 무의식이 주도권을 가지게 됨으로써, 무의식이 의식에 자신의 영향력을 실질적으로 행세할 수 있게 된다. 이로써 무의식은 자아의식에게 자신의 세계를 마음껏 펼쳐 보일 수 있게 되었다. 실제로 의식이 주도권을 상실하는 상태에 이르면, 자아가 자신의 입장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정신적 위기 상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앞서 검은 빨래를 희게, 흰 빨래를 검게 만들듯이, 자아의식의 완전한 가치 전도를 요구한 것이다. 여성 자아가 무의식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준비시킨 것이다. 이런 신뢰에 의해 자아의식의 위험한 해체 없이 무의식과 실제적 관계를 가질 수 있게 된다.

색시는 마침내 구렁덩덩 신 선비가 살고 있는 곳에 이르렀다. 구렁덩덩 신 선비가 살고 있는 곳은 아니무스가 매개하는 세계이다. 의식의 세계는 개별 자아의 목적에 의해 선택되고 규정되는 곳이라면, 아니무스가 제안하고 있는 세계는 보편적 가치가 지배하는 집단의 이념 세계이다. 혹은 인류가 삶에서 구현한 내용이 고스란히 보존되어 있는 지혜의 저장고이다. 이곳은 구렁덩덩 신 선비라는 이름에서 이미 언급되었던 신성의 세계인 것이다. 이제 자아의식은 가치의 전도와 같은 태도 교정에 의하여, 무의식과의 접촉에 의하여, 새로운 정신의 지평을 열게 되었다.

6. 셋째는 두 여인과의 경쟁에서 이겼고, 구렁덩덩 신 선비의 부인이 되었다.

구렁덩덩 신 선비는 이미 두 아내와 함께 살고 있었다. 색시에게 두 아내는 그림자에 해당하는 인물상이다(여기서도 다시 숫자 4가 두드러진다). 이는 구렁덩

덩 신 선비와 색시의 관계가 아직 완전히 동등한 수준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신 선비가 두 아내와 관계를 맺고 있음은 여성 의식에 거의 근접한 형태임을 나타낸다. 여기서 두 아내의 등장은 여성 의식의 활성화를 위한 무의식의 보상성에서 비롯된 것이다. 두 아내는 여성 자아의 더 분화된 내용을 위해 등장한 인물상들이다. 색시는 두 아내와 경쟁을 하게 되는데, 경쟁을 통하여 여성 의식의 주체가 실제적으로 구체화 될 수 있다. 결국 경쟁을 통하여 여성의 대표 주자를 더욱 의식적으로 강화할 수 있다. 이는 무의식과의 접촉에서 자아가 주도권을 무의식에 넘겨줌으로써 상대적으로 의식 저하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필수적인 처치이다. 이는 모두 여성자아의 의식 수준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제 구렁덩덩 신 선비가 제안한 과제들을 살펴보자. 첫 과제는 굽이 높은 나막신을 신고 30리 밖에 가서 은 동이로 물을 길어오는 것이다. 그 물은 병을 낮게 하는 약수이다. 구렁덩덩 신 선비가 여인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자연(본성)에서 제공하는 진귀하고 가치 있는 것을 인간의 삶으로, 의식의 삶으로 끌어들이 수 있는 여성 자아가 되라는 것이다. 셋째는 섬세하고 신중한 여성적 태도로 그것을 완수하였다. 높은 굽을 신고도 물을 흘리지 않을 만큼의 조심성과 고도의 집중력이 유력하게 작용한 것이다. 조심성, 신중함, 집중력 등은 모두 잘 분화된 자아의 의식성을 나타낸다. 여성 자아는 아니무스가 제공하는 것을 의식의 삶에 주의 깊게 활용한다면, 그것은 자신에게는 물론이고, 타인에게도 치유(약수)를 가져올 수 있음을 의미한다.

다음 과제는 호랑이 눈썹을 세 개 구해오는 것이다. 색시는 산으로 들어가 호랑이의 어머니인 노파를 만나게 되었다. 호랑이는 가축이 아니라 숲 속의 야생 동물로서, 인간성과 아주 거리가 먼, 그래서 더 내밀한 심층의 본능적인 힘과 관계한다. 말하자면 여성주인공이 호랑이의 털을 갖게 된다는 것은 그런 본능적 층과 연결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심지어는 그런 본능의 활력을 의식의 삶으로 가져올 수 있게 될 것이다. 의식이 소유하는 것은 겨우 한 개의 털이지만, 무의식에서 그것은 호랑이 한 마리에 해당하는 것임을 알아차리는 훈련이기도 하다. 의식에서 보면 사소한 부분적 단서가 무의식의 전체와 관련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더구나 호랑이는 동물의 왕이므로, 한 개의 털처럼 미미한 충동이 매우 강력한 삶의 활력, 엄청난 역동의 순간이 될 수 있다. 특히나 눈썹은 털이 갖는 본능적 생동감을 나타낼 뿐 아니라, 또한 '눈'이라는 시력 기관을 보호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자연에 내재

한 빛의 특성, 자연의 빛(lumen naturae), 자연(본성)의 지혜를 제공할 단서가 될 수 있다. 이 과정을 여성주인공은 모성상의 도움으로 해결한다. 이는 새로운 여성 의식으로서 자연(본성)과의 관계에서 모성 자연과 근본적으로 신뢰가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비록 호랑이가 야생 동물로서 인간성과 거리가 있지만, 그 역동성으로 보아 무의식에서 의식으로의 이행이 어느 순간에 이루어질 강력한 본능적 충동이 될 것이다. 아니무스는 여성주인공이 그런 힘을 갖추기를 바라고 있다.

마지막 과제는 겨울철에 딸기를 구해야 하는 것이다. 색시는 산 속에서 노인을 만나 동굴 속에 자라고 있는 딸기를 딸 수 있었다. 한 겨울에 자라는 딸기는 생명이 살 수 없는 차가운 동토에서 결코 꺼지지 않는 생명의 불씨와 같은 것이다. 또한 딸기는 이른 봄에 맺는 대지의 열매로서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고 마침내 의식의 삶에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결실을 맺는 것의 상징이다. 이러한 상징은 ‘어렵게 구하게 되는 고귀한 것(die schwer erreichbare Kostbarkeit)’에 해당하는 것으로, 자기(Selbst)의 상징이 될 수 있다. 그밖에 눈이 덮힌 땅은 여성의 지나친 정신적 활동으로 인하여 생명력이 살아 숨 쉬던 대지를 얼어붙게 만든 것을 나타낼 수 있다. 이는 어쩌면 지나친 아니무스의 영향력으로 소외되거나 억압된 정서적 측면에 관한 표현일 수 있다.¹⁴⁾ 여성 자아는 어떠한 상황이 되더라도 자신의 감정을 상실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겨울의 언 땅에서 딸기를 찾아내는 과제가 될 것이다. 여성이 아주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면 고도의 긴장감, 무장된 태도들, 혹은 정신적 고양감 등으로 본성 및 본능과의 단절 상태가 될 수 있는데, 그럼에도 자신의 고유한 감정을 지키게 된다면, 그것으로부터 전체 정신의 생명력을 회복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될 것이다.

무엇보다도 세 번째 과제는 여성 자아가 원래의 의식 수준으로 회복하기 위한 것이다. 흰 눈이 덮힌 대지가 강조되었듯이 아니무스의 매개로 경험하게 되는 무의식의 세계는 의식의 주도력을 희생한 상태, 무의식에 전적으로 자신을 내맡기고 있는 상태였다. 또한 흰 눈이 덮혀있는 상태는, 모든 것이 정화되고 새로워질 수 있게 준비되었음을 의미한다. 색시가 딸기를 수확한 것은 의식의 주도력이 되살아나서 의식수준의 복귀가 가능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¹⁵⁾ 세 과제를 완수하는

14) 소위 아니무스에 사로잡힘(Besessenheit)과 같은 현상이 될 수 있다.

15) 이는 연금술적 변용 과정에서 하양(albedo)에서 빨강으로(rubedo) 넘어가는 것을 의미한다.

동안 여성자아는 자신 의식적 의지력을 발휘하며 살아갈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능동적으로 변화하였다. 이것은 붉은 색의 딸기를 획득한 것으로 묘사되었다.

모든 과제를 완수한 색시는 마침내 구렁덩덩 신 선비의 정식 부인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이제 여성 자아는 의식의 주도권을 회복하였으므로, 다시 개별 인격적 특성을 의식에서 구체화 할 수 있게 되었다. 이제부터는 의식의 일방적 입장을 고수하는 것이 아니라, 구렁덩덩 신 선비(즉 아니무스)와 더불어 활동하게 된다. 이는 인격의 중심이 더 이상 여성 자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체 인격으로 옮겨져 있기 때문이다.

... 우리가 의식의 중심인 자아와 함께 무의식에 대변하고 무의식을 동화하고 있음을 상상한다면, 이 동화과정은 의식과 무의식이 서로 가까워지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이때 전체 인격의 중심은 더 이상 자아와 일치하지 않으며 의식과 무의식 사이의 중앙의 점이 될 것이다. 이것은 새로운 평형점일 것이며, 전체 인격의 새로운 중심잡기이다. 아마도 의식과 무의식 사이의 중심적 위치 때문에 인격에 새롭고도 더욱 확고한 기반을 보장하는 어떤 잠재적 중심이다. ...¹⁶⁾

나가는 말

민담 <구렁덩덩 신 선비>에서는 여성의 전(全)인격적 실현을 위한 대극의 합일의 내용이 잘 다루어져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여성의 아니무스는 시지기 원형에 기초하여 대극의 쌍으로서 형성되는데, 이는 모성상에 의해 여성의 자아의식에 알려질 수 있게 준비된다. 여성 자아는 모성적 수용적 태도에 힘입어 인격의 변환 과정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 이런 점에서 긍정적 모성상은 여성 인격의 발달에 필수적인 요건이다.

여성의 아니무스가 모성상과 연결되어 있는 한 객관정신으로 인식되기 어렵다. 대극의 합일이 되기 위해서 자아의식이 아니무스를 객관적 실체로서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민담에서는 아니무스가 객체로 알려지기까지, 의식에 알려질 수 있게 객관화되기까지의 상태를 구렁이라는 상징으로 나타내었던 것이다. 구렁이

16) Jung CG(1928) : "Die Beziehung zwischen dem Ich und dem Unbewußten", GW7, Par. 365.

의 허물을 벗고 인간이 되는 것은 아니무스가 객관화 되었음을 나타낸다. 민담에서 구렁이와 셋째의 혼인은 대극의 합일이 아니라, 비로소 서로 대극적임을 인식할 수 있는 의식수준에 이르렀음을 나타낸다.

여성의 자아의식과 아니무스의 만남이 실제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여성 자아가 의식성을 희생하고 무의식에 주도력을 넘겨줌으로써 가능했다. 여성 자아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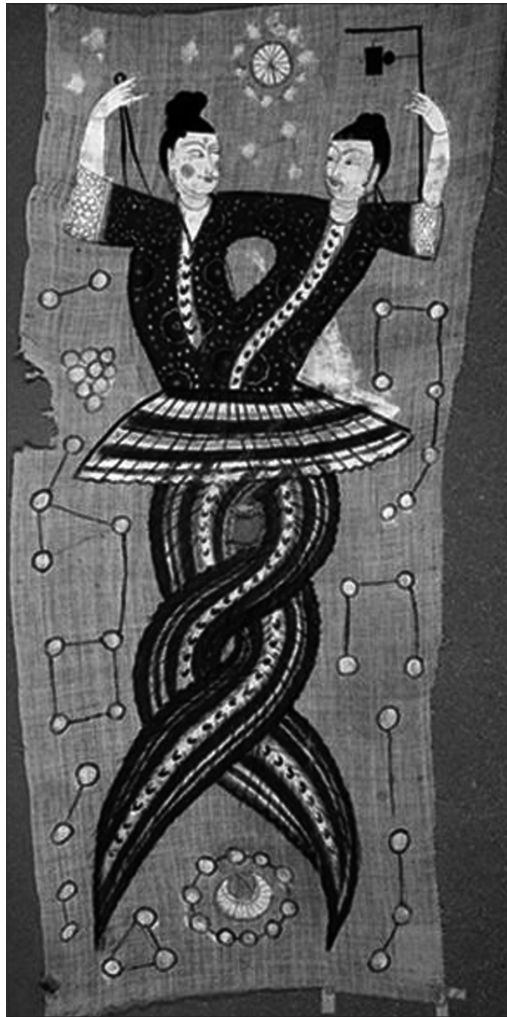


그림 1.

아니무스와의 만남으로 새로운 인격체로서 거듭나게 된다. 새롭게 태어난 여성 인격은 필요에 의해서 언제든지 보편적 인간 정신의 내용을 의식의 삶으로 가져올 주체가 된다. 여성의 아니무스는 바로 그런 자연(본성)의 풍요롭고도 치유적인 생산력, 의식의 삶의 지혜를 가져올 여성의 창조적 생산력을 매개한다. 새로워진 여성의 자아의식과 아니무스의 결합은 ‘신성혼’에 해당한다. 왜냐하면 아니무스와의 결합으로 자아의식도 신성을 획득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내용적으로 그것은 모든 대극을 하나로 융합한 전(全)인격적 존재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1〉은 대극의 합일에 관한 동양의 전형적 형상이다. 이는 음과 양의 의인화된 형상인 여와-복희의 결합, 즉 양성체(헤르마프로디투스)의 형상이다. 둘의 손에 각각 측량 기구가 들려져 있듯이, 그들은 조물주와 같은 존재로 세계의 중심에 있으며, 하나의 통일체적인 세계(unus mundus)를 형성한다. 민담의 결말에서 셋째가 성공적으로 실현한 구렁이 신랑과의 재회도 다음의 그림과 같은 형태가 될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여성 자아의식과 아니무스의 만남, 대극의 합일의 형상화이다. 그림에서 보듯이 여성과 남성 모두 신성한 존재로서 구렁이의 모습을 서로 공유한다. 이런 의미에서 구렁이는 개별적 인간 정신의 특징이 아니라, 집단적 보편적 정신을 표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참고문헌

- 최인학 · 엄용희 편저(2003) : 《옛날이야기꾸러미 2》, 집문당.
- Jung CG(1916) : “Die transzendente Funktion”, GW8, Walter-Verlag.
- _____ (1928) : “Die Beziehung zwischen dem Ich und dem Unbewußten”, GW7, Walter-Verlag.
- _____ (1936) : “Über den Archetypus mit besonderer Berücksichtigung des Anima-begriffes”, GW9/I, Walter-Verlag.
- _____ (1946) : “Die Psychologie der Übertragung”, GW16, Walter-Verlag.
- _____ (1951) : *Aion*, GW9/II, Walter-Verlag.
- _____ (1968) : *Mysterium Coniunctionis*, GW14/II, Walter-Verlag.
- Von Franz ML(2004) : *Der Goldene Esel*, Verlag Stiftung für Jung’sche Psychologie.
- Neumann E(1973) : *Amor and Psyche*, Bollingen Series LIV, Princeton University Press.
- _____ (2004) : *Ursprungsgeschichte des Bewußtseins*, Patmos-Verlag.
- Brüder Grimm(1980) : “Das singende springende Löweneckerchen”. *Kind-und Haus-*

märchen B2, Reclam Verlag.

Birkhäuser-Oeri S(2003) : *Die Mutter im Märchen*, Verlag Stiftung für Jung'sche Psychologie.

Shim-Sŏng Yŏn-Gu 2012, 27 : 1,2

〈ABSTRACT〉

Coniunctio Oppositorum in Korean Fairytale

– < Gurungdungdung Sin Seonbi > –

Youkyeng Lee, Ph.D.*

It aims to deal with a topic of coniunctio oppositorum, hieros gamos in a Korean fairytale <Gurungdungdung Sin Seonbi>, in which a human heroine was marrying an animal husband. This Korean fairytale may be compared with Greek mythology <Eros and Psyche> introduced by Apuleius and <Das singende springende Löweneckerchen> collected by Grimm Brothers.

All these fairytales commonly tell that animal husband figures have divine nature. Because animals live their lives totally obeying instincts, the collective unconscious principles of species are completely accomplished. The animal nature excludes ecocentric attitude so that it has transpersonal divinity. The hero is transformed into an animal in the fairytales, which will provide an opportunity to change a one-sided exaggerated attitude of the ego consciousness and acquire universal humanity. During being an animal, the hero would have experienced to recognize true meaning and value of other living creatures in nature and have attained wisdom of nature. The animal is a symbolic being who will realize value of collective and universal life so as to act therapeutically and contribute to the total personality, individuation processes.

Animals in the fairytales correspond to the compensatory contents of the unconscious. Animal figure itself is opposite to the ego consciousness itself because the ego understands the unconscious contents like animal figures have instinctual impulse that the ego will not accept at all. Coniunctio oppositorum in the fairytales is going to show the ego's rendezvous processes to meet the unconscious. The fact that the hero turns into an animal or marries animal partner is a psychic event which greatly lowers under the level of ego consciousness. To overcome the state, it is essential for the hero to regain humanity or to transform animal part-

ner into a human being. By the recovery of humanity or reaching the human level, compensation of the unconscious can be realized in the conscious life.

In a Korean fairytale <Gurungdungdung Sin Seonbi>, male partner is a serpent but the heroine marries the serpent and make it cast off skin. Over sufferings and accomplishment of several tasks, heroine truly meets her husband. In this processes, the heroine obtains divinity. As result, her marriage to animal husband means hieros gamos. In this fairytale, we will be able to look through the ways how female ego-consciousness to make relations to the unconscious and to fulfill individuation.

KEY WORDS : Coniunctio oppositorum · Hieros gamos · Animal husband · Individuation.

**Jungian Psychoanalyst, Director of Analytical Psychology Center, Seoul, Korea*